

“기억 잃어가면서도 ‘촬영 시간’ 물어봐”

10년 전 첫 증상... 혼자 파리서 간병 올해 초 귀국... 현재 딸 곁에서 안정 출연작 '시'와 상황 비슷해 안타까움 당시 제작진 “아픈 사실 믿기지 않아”

배우 윤정희(75)가 10년째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요양 중인 그녀는 간혹 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증상이 악화했지만 최근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정희의 알츠하이머 투병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73)가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공개했다. 백 씨는 10여년 전 증상이 시작됐고 올해 초 악화할 때까지 가족 외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아내를 돌보았다.

이들 부부는 올해 초 귀국해 편안히 요양할 만한 장소를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얼굴이 알려진 배우인 탓에 여의치 않았다. 지금은 딸(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의 집 바로 옆에 거처를 마련해 지내고 있다.

가족이 투병을 알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기억을 점차 잃어가는 윤정희가 지금도 ‘촬영 시간’을 묻는 등 영화를 향한 열정만큼은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는 가족의 마음이다.

윤정희의 최근작은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이다. 당시 16년 만의 영화 복귀로 주목받은 그녀는 ‘시’를 통해 칸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 레드카펫을 밟았고, 청룡영화상과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휩쓰는 등 저력을 증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시’에서 연기한 인물과 실제 상황이 겹쳐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영화에서 윤정희는 중학생 손자를 혼자 키우는 할머니이자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기억이 희미해지는 인물을 연기했다. “10년 전쯤 발병했다”는 가족의 설명에 비춰 ‘시’를 내놓을 무렵과 그 시기가 맞물린다.

‘시’에 참여한 한 영화 관계자는 10일 “윤정희 선생님은 촬영은 물론 개봉을 앞두고도 인터뷰 같은 활동도 적극적으로 소화했다”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그런 인상에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의욕적이었다”고 돌아왔다.

윤정희는 ‘시’ 이후로도 영화 관련 작업을 계획해왔다. 지난해 11월 영면하고 신성일은 생전 윤정희와 함께 영화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정희는 신성일이 하늘로 떠난 직후 열린 지난해 영평상 시상식에 공로상 수상자로 참석해 “신성일 선생님과 영화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어 너무나 아쉽다”며 눈물을 흘렸다.

윤정희는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해 300여 편에 출연한 스타 배우다. 특히 남정임, 문희와 더불어 19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를 형성하며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인정받아왔다. 1974년 영화 공부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만난 백건우 씨와 1976년 결혼해 파리에서 거주해왔다. 이혜리 기자 go11024@donga.com



배우 윤정희가 10년째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은 최근작인 이창동 감독의 2010년 영화 ‘시’에서 그가 순수한 시를 꿈꾸는 여인의 모습을 연기하는 모습이다. 작은 사진은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한 뒤 1960년대 남정임·문희와 함께 ‘트로이카’로 불리던 당시 모습. 사진제공 | 파인하우스필름·스포츠동아DB

‘투표 조작’ 엑스원·아이즈원 해체 수순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48’과 ‘프로듀스X101’이 배출한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해체 여부가 주목된다. 두 프로그램의 연출자 등 제작진이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두 그룹에 대한 해체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멤버들의 소속사 관계자와 매니지먼트 담당자들이 모여 이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즈원의 한 멤버 소속사 관계자는 10일 “조작 논란이 거세지면서 멤버들의

정서가 많이 불안한 상태”라면서 “우선 멤버들을 안정시켰지만 이대로는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워낙 파장이 큰 사건이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CJ ENM에 달렸다. ‘더 이상 활동할 명분이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만큼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원도 일단 예정된 해외 일정은 변동 없이 소화하고 있지만, 더 이상 활동은 불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룹 멤버들 역시 사건의 피해자인 만큼 제작진이 조작에 개입한 일부 멤버를 제외하고 팀을 재정비해 활동을 이어가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에 휩싸인 멤버를 특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결국 “그룹 해체가 답”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일부 멤버의 신상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엑스원 멤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조작

그룹 ‘조작 멤버’라는 비난과 논란 속에 해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조작의 결과로 수혜를 입은 멤버의 실명까지 나돌 경우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그룹은 국내 모든 방송 일정을 취소했고, 다음달 4일 일본 나고야에서 CJ ENM이 주관하는 음악 시상식 ‘MAMA’에도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활동 전면 중단...소속사 등 모여 해체 논의 최종 결정은 CJ ENM의 몫...조만간 결론

연예뉴스 HOT 4

협박 혐의 양현석, 14시간 경찰조사



협박 등 혐의로 입건된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 양현석(50)이 14시간의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양현석은 9일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밤 11시50분까지 조사를 받고 나왔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23)의 지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다. A씨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업무상 배임 및 진술 번복에 따른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백종원 ‘맛남의 광장’ 오늘 첫 장사

백종원이 새 예능프로그램 SBS ‘맛남의 광장’의 첫 장사를 11일 시작한다. 10일 SBS는 “백종원, 김희철, 양세형, 김동준이 동해고속도로 강원도 속초 방면 옥계휴게소에서 강원도 특산물로 만든 메뉴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메뉴는 감자, 홍게, 양미리를 활용해 이들이 직접 개발했다. 12월 5일 첫 방송하는 ‘맛남의 광장’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휴게소, 공항, 철도역 등 유통인구가 많은 곳에서 판매하는 과정을 담는다.

(여자)아이들, 11월 걸그룹 평판 1위



(여자)아이들이 11월 걸그룹 브랜드평판 1위에 올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브랜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브랜드 평판 지수를 측정해 (여자)아이들이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2위는 트와이스, 3위와 4위는 마마무와 블랙핑크였다. 한편 이들이 참여한 엠넷 ‘퀸덤’의 파이널 컴백 싱글 ‘라이온’ 뮤직비디오가 9일 정오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넘어섰다.

‘82년생 김지영’ 300만 관객 돌파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82년생 김지영’은 10일 현재 누적 관객 320만여 명을 동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영화는 개봉 전부터 무차별 ‘평정 테러’에 시달렸지만 개봉 3주차까지 흥행 기운을 이어가고 있다. 정유미·공유 주연 영화는 1982년생 김지영이라는 평범한 여성이 겪는 삶에 공감과 위로의 시선을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태양·대성도 전역...‘4인조’ 빅뱅 모두 컴백

태양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 것” 지드래곤, 23일 아트 퍼포먼스 무대



빅뱅 대성(왼쪽)과 태양

그들 빅뱅의 멤버 태양과 대성이 10일 군 복무를 마치고 나라를 전역했다. 10월 26일 지드래곤이 제대했고, 앞서 탑 역시 7월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돼 ‘버닝썬 논란’으로 그룹에서 탈퇴한 승리를 제외하고 4명의 빅뱅 멤버들이 모두 사회에 복귀했다. 이들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전 총괄프로듀서 양현석과 승리가 연루된 여러 사건 등 잇단 악재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어 향후 행보로 관심을 모은다.

지드래곤이 첫 번째 복귀 무대를 연다. 지난달 말 전역하자마자 글로벌 스포츠브랜드인 나이키와 디자인 협업에 나선 그는 SNS를 통해 예술에 대한 철학 등을 담은 동영상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23일 800명의 팬들 앞에서 이와 관련한 ‘라이브 아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멤버별 솔로나 유닛 활동 가능성도 커지

고 있다. ‘완전체’로서 본격 활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관측 때문이다. 이날 전역한 태양은 “앞으로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열심히 고민하고 저희끼리 의견을 모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멤버들 가운데 사건과 논란에 한번도 휘말린 적이 없는 태양은 솔로가수로 입지를 확장했다. 지드래곤과도 2014년 유닛 ‘GD X TAEYANG’으로 활동해 인기를 얻은 만큼 이들이 펼칠 두 번째 유닛 활동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정연 기자

예능대부 이경규는 왜 ‘버럭경규’를 버렸나

‘신상출시 팬스토랑’ ‘개는 훌륭하다’ 기존 프로와 전혀 다른 콘셉트 도전



이경규

방송인 이경규가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며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를 공략하고 있다. 이경규는 최근 KBS 2TV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팬스토랑’과 ‘개는 훌륭하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출연해온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콘셉트로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며 베테랑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신상출시 팬스토랑’에서 이경규는 요식업 사업가로 변신했다. 전국 편의점에 출시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는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가의 기질을 드러내고 있다. 이경규는 실제로도 요식업 경영에 참여한 경험을 녹여내고 있다. 그는 한 치킨 브랜드의 2대 주주이자 이사로 기업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최근 메뉴 개발에도 직접 나선 그는 10년 전 KBS 2TV ‘남자의 자격’에서 닭 육수를 이용해 만든 라면 ‘꼬꼬면’으로 대박을 터트린 바 있다.

‘버럭’하는 성격에 자기중심적인 이미지가 강한 ‘예능 대부’의 ‘자아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도 추가했다. ‘개는 훌륭하다’에서 이경규는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의 ‘제자’로 나선다. 주로 누군가를 다그치고 지시하는 설정의 역할을 맡았던 그가 강 씨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신선한 재미를 안겨준다. 마치 ‘툼과 제리’의 관계와도 닮았다. 이훈희 KBS 제작2본부장은 10일 “이경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자재로 변신한다”며 “베테랑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아주는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